지난 19일 법주사에서 봉행된 효일당 범행대종사의 다비식.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거화의식이 거행되자 사부대중은 대종사를 향해 합장을 하고 마지막 예를 올렸다.

"새벽해는 반야로 시방세계를 밝히셨도다"

■ 범행 대종사 영결식 원로회의장 '엄수'

지난 15일 입적한 제5교구본사 법주사 조실 효일당 범행대종사의 영결식이 지난 19일 오전11시 법주사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빗속에도 불구하고 범행대종사의 분향소와 법주사 경내는 스님을 추모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사부대중은 일찍부터 분향소를 찾아 범행대종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켰다. 영결식장에 자리를 잡지 못한 불자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내내 전각 밑에서 합장을 한 채 애도를 표했다. 은사 금오스님을 도와 정화불사에 적극 참여해 종단의 기틀을 조성했으며, 삼보정재 수호, 군 포교 발전, 수행과 후학양성에 앞장섰던 스님이기에 범행대종사를 보내는 사부대중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 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불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에 이어 범행대종사를 모시는 세민스님과 동성스님의 영결법요로 시작됐다. 원로의원 월탄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범행대종사의 육성법문이 경내에 울려퍼지자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불자들도 눈에 띄었다.

범전 종정예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영결법어를 통해 "팔달산의 종소리는 두루 삼천대천세계에 울려 퍼지니 새벽 해(曉日)는 시방세계를 반야의 빛으로 밝히셨도다"면서 "햇살이 얼음 녹여 물을 따라 흘러가 버렸으니 누구라서 우릴 위해 사립문을 닫아 줄 것인가"라고 애도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도 현해스님(원로의원)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대종사의 일상은 공심(公心)과 운력(運力)"이었다고 회상하며 "일체 대중은 대종사의 임종게를 되새기면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극복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평소 '한 생을 버려서도 안되면 누생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닫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다가온다' 시던 가르침은 스님의 불은으로 삼아 후학들이 정진으로 간직하겠다"며 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불교 중흥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범행대종사 문도대표 혜광스님은 "우중(雨中)에도 영결식에 참석해주신 많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범행대종사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수행과 포교에 힘쓰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의 헌화 모습.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의 추도사.

다비장으로 이운되는 대종사 법구 .

"한 생각 놓고 보니 걸림 없는 환희…"

임종게 되새기며 쉼 없는 정진 다짐

범행대종사의 법구는 영결식 이후 일주문을 나와 500여m 떨어진 연화대로 옮겨졌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소리와 함께 거화의식이 거행되자, 사부대중은 합장을 한 채 범행대종사를 향해 마지막 예를 올렸다.

한편 범행대종사의 49재는 오는 21일 수원 팔달사에서 봉행되는 초재를 시작으로, 1월28일 2재, 2월4일 3재, 2월11일 4재, 2월18일 5재, 2월25일 6재, 3월3일 7재가 각각 봉행될 예정이다.

법주사=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불교 전통의식 공부 한글의식연구 보급 병행"

'전통의례 전승원' 홍원사서 개원

한국불교전통의식을 공부하고 한글의례의식을 연구 개발할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학장 동주스님, 조계종 어산어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18일 서울 홍원사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 중앙종회의원 도정스님, 종민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지명스님 등 50 여명이 참석해 전승원 개원을 축하했다.

전승원에선 학장 동주스님을 비롯해 학감 정오스님(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한글의례실무위원), 행자교육원 교수사 현준스님, 영산재 이수자 도경스님(동방대학원대학 박사과정) 등이 학인 스님을 지도한다. 또 불찬범음연구소장 혜일스님이 외래교수로 참여한다.

학제는 전문과정 2년, 연구과정 2년, 기능과정 1년으로, 불교의식연구, 한글불교의식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 전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기능과정에서는 수륙작법을 익힌다. 이와 함께 전승원 차원에서 수륙재 복원 및 한글의식 연구·보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학장 동주스님은 "한국불교 전통 소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맥을 이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의례의식을 배우기 시작해 체계적으로 의식을 지도할 전승원까지 개원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각 분야 전문가인 교수사 스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후학들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50년간 한국불교 전통의례를 복원하고 전수해온 종단의 어산어장 동주스님의 원력이 전승원 개원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축하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의 근간인 전통의례 복원은 물론 의례의식 현대화에도 매진해온 학장 스님의 원력이 전승원 개원을 계기로 크게 꽃피우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1월17일 종무회의 결과

법정스님 여주 오갑사	성일스님 옥천 서광사	성안스님 금산 신안사	탄공스님 문경 대승사	월주스님 김해 동림사
원경스님 제주 천은사	원경스님 봉화 중대사	의성스님 전주 서고사	진성스님 순천 동화사	왕산스님 포천 왕산사